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 20억여원 적립

## 내년 스님 노후복지사업 본격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이 4월 23일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동원자 총신보협 가입서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본부장 보경 스님(조계종 재무부장).

조계종은 지난 3월 초 스님 노후복지 및 불교 사회단체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10일 현재 190여개 사찰 및 단체와 490여명의 스님 및 신도님들의 동참으로 총 586건의 자동차·화재·생명보험 보시계약이 체결돼 20억 9500만원의 보시보험 약정금액이 적립됐습니다. 조계종은 불기 2549년 예산에 스님노후복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스님 노후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가입 동시 재보시되는 생활보시운동

**■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이란?**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스님들의 복지향상과 불교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생활 보시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스님복지 지원과 불교 사회복지 지원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연인원 1,000여명의 조계종 원로 스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법당과 상담실이 마련된 노스님 수행관을 준비할 것입니다. 조계종의 사회복지 지원제도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봉사 참여 불차양성이 그 목적입니다.

### 수행·포교 전념 풍토조성은 중단 숙원

**■ 추진배경**  
스님노후복지의 종단의 안정과 스님들께서 안심하고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조계종은 승려노후복지 기금 조성 및 불교사회복지 기금 조성을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종단내 자체적인 승려노후복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일환으로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 새로운 참여운동으로 포교 활성화 목적

**■ 추진목적**  
첫째,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재보시 실천 운동입니다. 보시금은 승려노후복지·불교사회복지 지원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둘째,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종단차원의 새로운 참여 포교 운동입니다. 불교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을 일회성 보시가 아닌 중장기적인 재보시 실천 운동인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시키고 불교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포교 활성화 방안입니다.

### 190여 사찰 및 단체·490여명 동참

**■ 동참현황**  
올해는 본격적인 동참 활동보다 본 운동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주력했으나 그 동안 190여개 사찰 및 단체와 490여명의 스님 및 신도님들의 동참으로 총 586건의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및 생명보험 보시계약이 체결돼 20억 9500만원의 보시보험 약정금액이 적립됐습니다.

**■ 동참방법**  
첫째, 손해보험 가입을 통한 동참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화재보험 사기별도의 추가 부담 없이 주권사인(주)케이비엘피를 통해 가입하면 됩니다. 둘째, 생명보험금보시 운동을 통한 동참방법이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점에서 보험수익자를 사찰, 복지단체 등으로 직접 지정해 생명보험금 전부·일부를 보시하시면 됩니다.

###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보시운동

**■ 보험으로 나눔운동 하는 이유**  
첫째, 보험은 많은 불자들을 본 나눔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보험을, 가입 희망 보험회사에 가입 가능합니다. 둘째, 보험은 작은 보시로 큰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월 2만원씩 현금으로 10년간 보시하면 240만원이지만, 자비보시보험을 가입하면 생명보험금 1천만원 보시가 가능합니다. 셋째, 보험금 나눔운동은 가장 투명한 선진 기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보험 계약서에 사찰이나 단체를 직접 지정하고 증도변경 가능합니다.

### ■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보험금나눔운동본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본부 TEL (02)2011-1750 FAX (02)733-8536 www.buddhism.or.kr  
후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주간불교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BBS, btn  
주관: (주)케이비엘피 TEL (02)733-5780 FAX (02)733-5785 나눔운동 홈페이지 www-i-nanuncook <법공양>

# 장애없는 사찰 문턱 신심 두배

## 통영 미래사 장애인 화장실·휠체어 진입로 불사

통영 미래사주지 여진이 장애인 화장실과 법당까지 연결되는 휠체어 진입로를 조성하며 장애인들에게 사찰의 문턱을 없앴다. 미래사는 12월 1일 장애인 편의시설 불사에 들어가 22일 화장실 출입로 공사과 법당 진입로 보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법당 앞을 가로막는 계단, 불편한 화장실 때문에 절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엔 말할 수 없는 희소식. 장애인들은 미래사를 방문, 화장실을 사용해보거나 계단 대신 설치된 경사로를 따라 법당 참배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 냉난방·비상벨 등 마련 법당 참배 즐거움 배가

미래사 주지 여진 스님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1차 공사 직후, 장애인들이 실제로 화장실과 진입로를 이용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 재공사를 했다. 휠체어 진입로는 잔디 대신, 바위가 잘 끌러가는 대리석 재질을 교체했고,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두꺼운 석재를 골라 사용했다. 휠체어를 탄 채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은 냉난방 시설은 물론,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벨, 샤워시설까지 갖췄다. 법당 바로 앞까지 연결된 휠체어 진입로는 장애인들에게 법당을 찾아기 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았다.



통영 미래사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휠체어를 타고 법당에 참배할 수 있도록 경사 진입로를 설치했다. 사진=천미희 기자

계단 대신 설치된 경사로를 만나는 이들이 장애인만은 아니다. 관절염으로 계단이 두려운 노보살들이나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젊은 보살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또한 미래사 대중들에게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생의 도리를 체득하는 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진주 경상대학 병원 법당에서 병고로 고통 받은 이들과 15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여진 스님의 이력에서 비롯된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한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절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네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장애우가 무심히 던진 말이 스님의 결심을 도왔다. 스님은 "미래사 화장실이나 휠체어 진입로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장애인용 차량을 운행,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찰을 찾을 수 있길 서원하고 있다. (055)645-532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 삼광사는 동지 전날인 12월 20일, 4만명 분량의 팔죽을 끓여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공양했다.

## 삼광사 4만여명에 동지팔죽 공양

### '2005 APEC 성공기원 예술제'

일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를 하루 앞둔 동지 전날인 12월 20일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에서는 '2005 APEC 성공 기원 삼광사 동지 예술제'의 막이 올랐다. 동지 팔죽을 먹으며 액운을 떨치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열린 이날 예술제는 국악, 성악, 트럼펫, 색소폰, 원형북춤 등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허남시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예술제에서 운덕 스님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맑고 아름답게 정화된다면 APEC 성공개최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4만 명 분량의 팔죽을 대형 가마솥에서 끓여 동지예술제에 참가한 귀인과 불자들에게 공양했다. 천미희 기자

## "무념처에서도 후학들 인도해 주길..."

### 월하 스님 입적 1주기 추모법회

#### 통도사, 20일 부도탑 제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20일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 부도탑 제막식,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월하 스님의 가르침을 기렸다. 20일 설법전에서 봉행된 추모법회는 원로 의인 성수, 동훈 스님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문도대표 초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종 5타로 시작했다. 통도사 선다화와 문도대표 초우 스님의 헌다와 대중 삼배, 추모 입적, 지안 스님의 행차 소개에 이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법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일년이 지났지만 곁에 계신 것처럼 그리움과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적정열반의 무념처에서도 대종사님의 크신 덕화와 지체로움으로 저희 후학들을 인도해 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부도원에서 열린 월하 스님 부도탑 제막식은 제막, 조성경과 보고, 주지 현문 스님의 인사말 순서로 진행됐다. 월하 스님의 부도탑은 화장실 재료로 탑신의 사천왕입상의 밑그림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인 단청장 석정 스님이 그렸으며 최화부인 지대석이 정사각형인 것과 최상부 보주가 원형인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팔각으로 조성된 팔각당형이다. 이에 앞선 19일 설법전에서는 '통도사 현대 고승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통도사를 거쳐 간 현대의 대표적 스승 구하, 경봉, 월하 스님을 재조명하는 첫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현문 스님은 세미나에 앞서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도사 현대 고승과 선대 고승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그분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학술적으로 평가 조명함으로써 불교의 혜명을 잇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동민 수원시 전로위원이 '근대시기 통도사의 변화와 김구하 스님의 활동'이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한형조 박사의 '경봉 스님의 법문과 선공' 김광식 교수의 '월하 스님의 불교정화운동'이라는 주제 발표가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천미희 기자

### 동화사 한·몽교류협 설립 신청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한국과 몽골간의 교류가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에 나섰다.

동화사는 12월 17일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을 법인 대표로 하는 '사단법인 한·몽 불교 교류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달 이사회 때 의결된 사항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화사는 법인 허가날 경우, 다음달 중 사단법인 설립 축하법회를 봉행한 뒤 몽골 불교계와의 교류협력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 각원복지재단 독거노인 지원

각원복지재단 바라밀(가칭)은 12월 21일 전북면 독거 노인세대와 지산 동촌 경로당, 이목리 마을회관에 동지 팔죽, 쌀, 밀반찬 등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각원복지재단 바라밀은 무의탁 장애 노인요양소, 재가 노인복지센터 설치를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인 복지 단체인 21일 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원복지재단 바라밀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광도 스님은 신촌의 각원사 경내 부지에 3층의 목조 신축 건물을 조성중이다. 또한 전북면 소재 기관장, 종교, 사회단체 인사로 구성된 '전북면 복지개발위원회' 회장으로 지역 사회복지활동과 지역의 복지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광도 스님은 "동지의 팔죽 공양을 시작으로 지역 내 어려운 세대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펼치고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쌀, 밀반찬, 생필품 등을 정성껏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천미희 기자

### 대불어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예)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동안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제38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정예 스님, 대불어 회장 덕진 스님, 좋은 벗 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을 비롯, 운문사와 동화사 학인스님, 전국 어린이법회지도 교사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는 어린이 지도자로서 사상이 함께 열려 마산 정인사 관인철 지도자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연수회에서는 사찰예절과 찬불가, 율동 등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구연동화, 레크리에이션을 비롯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과학놀이 등의 내용들이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천미희 기자

### 청도 적천사 화재, 요사채 전소

12월 20일 밤 8시 50분경 전통사찰인 경북 청도군 적천사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 옆 10여평 규모의 요사채 1채를 완전히 태우고 두시간만에 진화했다.

화재 당시 적천사에는 스님과 신도 60여 명이 동지 법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 신도들의 힘으로 소방차 3대가 2.5km가 넘는 산길을 올라올 동안 대웅전과 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요사채 전경에서 불길기 처섯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 적천사는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천연기념물은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배지선 기자

### 동국대 경주캠퍼스 '얼굴' 발간

"형, 누나들과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욕심도 부리고 인사도 못해서 미안해. 쿼즈도 하고 과자도 먹고 같이 놀고 참 재미있었어. 사랑해.(연꽃마을 정훈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11대 학생회(회장 황의모)가 지난 1년간 활동상을 담은 회지 <얼굴>을 발간해 대구 경북지역 사찰에 전달하고 그동안 활동을 도와준 데 대한 감사함을 표했다.

3페이지 분량의 회지 <얼굴>은 불교문화대학생회가 지난 여름 연꽃마을 어린이들을 초청한 2박3일간의 연꽃마을 여름캠프를 마치고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엮은 것.

불교문화대 학생회는 '얼굴'을 통해 불교문화대의 여러 학과를 소개하고 봉축주간 행사 '보시는 향기를 남기고', 연꽃마을 어린이 초청 여름캠프, 불대인 한마당, 백상제전 등 1년간 학생들의 활동과 느꼈던 단상들을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배지선 기자



부도원에서 열린 월하 스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하고 있는 장면. 대중들이 합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

### 눈높이 교과 과정 강화

#### 대한불교교사대학 수강생 모집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대한불교교사대학(회장 정예)의 교과과정이 확 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국내 불교대학기관 제1호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 법회에 직접 활용되는 교수 방법, 현장 학습, 실습 등의 기본에 레크리에이션, 구연 동화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다. (051)852-0852, www.kbtcc.or.kr

천미희 기자